**1요0309 Note**

**◆ 본절에 대한 해석**

◇<케네스 해긴>

우리가 수수께끼처럼 여기는 본문입니다.

이 본문은 속사람(영)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본성은 잘못을 행하는 본성이 아닙니다.

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수 많은 과실을 범했습니다. 그러나 나의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.

나의 속사람은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게 동의한 적조차 없습니다.

나의 속사람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애를 썼으며, 내가 죄를 졌을 때 나의 심령은 울었습니다.

◇<변승우 목사>

이것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의견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,

속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,

그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것이며,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

즉 이 구절이 말씀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,

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르키고 있습니다, 간혹 다른 방향을 가르키고 있다가도 곧 북쪽을 다시 가르킵니다.

웅덩이에 빠진 양과 암돼지가 있습니다,

양은 곧 그 웅덩이에서 빠져 나와 웅덩이에서 멀리 달아납니다,

그러나 암돼지는 그 웅덩이에서 비비고 놉니다, 빠져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.